

김영록 지사 “유럽연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동행”

전남 찾은 EU 회원국 대사들과 간담회
정부 산업전략 기조 협력기반 강화 협의
에너지 전환·첨단산업·문화관광 맞손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 경제·산업·관광·문화·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지속가능한 미래 동행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일 목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17개 회원국 주한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의 강점을 소개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후·에너지 전환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0일 목포에서 열린 '주한 EU 대사단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JUNE 20, 2025 | MOKPO

JeollaNamdo

〈전남도 제공〉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남도 역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전남의 ▲우주항공·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첨단 산업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수축산 산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 자원을 소개하며 유럽연합과의 다각적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두주자로서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대사는 “전남도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혁신적 에너지 기반을 갖춘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가치와도 전남의 비전이 잘 맞닿아 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체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단의 전남 방문은 이날 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목포·영암·해남 일대에서 진행됐다. 대사단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산이정원, 현대삼호조선, 목포 구도심 등을 둘러보며 전남의 산업·문화 자원을 체험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도시 및 지역 협력사업(EU IURC)을 포함한 EU 공동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대응 ‘민관합동 TF’ 확대

협력업체·주민 참여 2차 회의
분과별 논의 등 종합대책 수립

광주시는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TF 운영방식을 보완·강화해 노동계, 협력업체, 피해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했다.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시민체육기획·지원체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광주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시의회, 광산구, 금호타이어, 경제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

표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과별로 ▲협력업체 지원·지방세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위기 지역 신청 ▲2차 환경피해 예방 조치 등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대책 ▲공장복구 행정절차 단축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보호 ▲증금속 등 분석 결과 공개 ▲장마철 대비 오염물질 하천 유입 차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됐다.

민관합동 TF는 경제분과, 고용분과, 환경·보건분과, 주민지원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실무 논의를 통해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민관합동 TF 회의를 정례화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산림연구원에 2027년 친환경 목재누리센터 들어선다

산림청 ‘목조건축실연사업’ 130억 투입
북카페·교육실·전시 등 편의시설 조성

전남도산림연구원이 오는 2027년까지 연구원 부지에 목재문화·체험교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목재누리센터를 건립한다.

22일 전남도산림연구원에 따르면 목재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했다. 〈조감도〉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대표 대수종인 편백과 삼나무가 별기기에 도달할 때 따라 이를 수종을 적극 활용한 공공 목조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산 목재 활용을 통해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는 물론 목재의 우수한 탄소저장 기능과 친환경성을 홍보하고 도민의 목재사용 인식을 높이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누리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6

5억원 등 총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산

목재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목구조 건축물로 건립된다. 지상 2층, 연면적 약 2천100㎡ 규모로 ▲국내 최초 목조 온실 ▲세계 목공예 전시공간 ▲숲속 도시관 북카페 ▲어린이 목재 실내놀이터 ▲산림교육실 ▲옥상전망대 등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5일 개최된 ‘목재누리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이 설계파트너로 선정돼 목재누리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전남지역 첫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만큼, 도민 누구나 즐기고 휴식할 목재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목재문화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전남도, 27일까지 연장

보험료 90% 지원…병해충 7종 특약 보장

전남도는 22일 “잦은 호우로 밀, 보리, 귀리의 수확과 벼 이앙이 늦어짐에 따라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돋는 사업이다.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종의 병해충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약 54만원으로 농업인은 10%인 5만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 농가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벼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은 가루쌀은 7월11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은 “매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벼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다”며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에 늦지 않게 관심을 갖고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 교통안전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을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은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율: 158.9%)

※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운전 방법

1. 안전거리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2. 전방주시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길고 주행과 동일

3. 안전벨트
광주·전남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안전벨트 미착용